

신안 선도, 백악기 화산 흔적 대규모 발견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위한 지질지형조사 과정서 발견 야구공 형태 부가화산력·100mm 대형도 확인 '학계 관심'

신안에서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 흔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도읍 선도 북측에 드러난 중생대 지층에서 대형 부가화산력(또는 첨가화산력, Accretionary Lapilli)이 발견됐다.

'부가화산력'은 화산이 분출할 때 형성되는 야구공 형태의 구형에 가까운 암석으로 화산재 덩어리다. 수중 화산폭발 때 많은 습기를 포함해 끈끈해진 화산재가 뭉쳐서 만들어진다. 보통의 크기는 10mm 이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도읍 선도 북쪽의 범덕산 인근에서 발견된 부가화산력은 100mm 이상 크기의 대형도 발견되고 있다. 통상 제주도 서귀포의 통일탄 크기과 비교하면 매우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신안군에서 과거 대형 수중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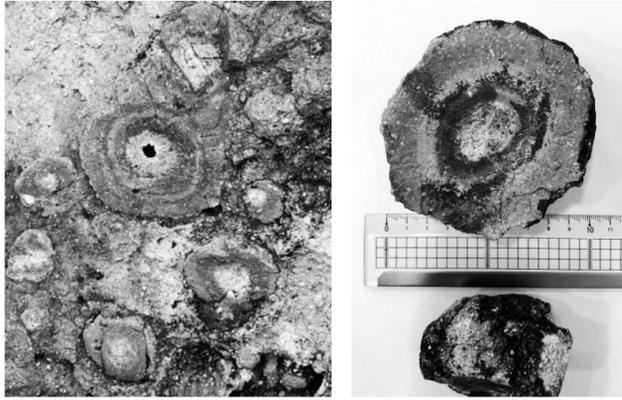
폭발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10mm 이내의 크기로 알려진 부가화산력에 비해 크고, 분포면적도 섬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특이하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담당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부가화산력의 흔적은 통일탄 한 크기"라면서 "선도의 부가화산력은 크기가 야구공만하고 면적도 섬 절반에 가까워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부가화산력이 발견된 지도읍 선도는 중생대 백악기의 응회암과 화산암으로 이뤄져 있다.

신안군에 속한 대부분의 섬들 역시 중생대의 화산분출에 의한 용암이 굳어져 생긴 암석(화산암, 화성암)과 화산재가 뭉쳐서 생긴 암석(응회암)으로 구성돼 있다.

부가화산력의 발견은 신안군의 과거 지질시대와 관련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안군이



신안군 지도읍 선도에서 발견된 화산 흔적(부가화산력). <신안군 제공>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안퇴적지형과 해안침식지형,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과 연계해 관광요소로도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도읍 선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 중 신안갯벌(전남 신안)에 속해있는 섬으로, 지난해 10월5일 세계자연보전연맹(ICUN)의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한 부가화산력 및 발견지점과 같은 특이현상들을 '한국의 갯벌'과 연계해 지질명소 등과 같은 관광자원, 야외 현장학습지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합평 나산면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 발족...맞춤복지 실현

합평군 나산면은 최근 면사무소에서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을 발족하고 지역 7개 기관과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초등학교·파출소·우체국·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 등 나산면 소재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 이들 기관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민관협력력을 통한 인적안정망 확대 구축에 공감하고 위험가구 발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산면은 지난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운영해 15곳의 복지위험가구를 발굴하고 340여 차례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경연 나산면장은 "이웃살피기 발굴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며 "그동안 마을이장 등에 국한됐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망을 큰 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빠르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화 기자 hwang@

초등생 역사학도가 쓴 '문화유산답사기'

나운수 합평군수 권한대행, 손불초 6년 김용건 학생 격려

나운수 합평군수 권한대행이 지난 12일 '소년 역사학도' 김용건(손불초 6년) 학생을 만나 격려했다. <사진>

이날 만남은 최근 김 군의 '문화유산답사기'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나 권한대행이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나 권한대행은 "역사학은 물론 인문학 전체가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역사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 편향된 역사인식이 담긴 역사책들이 일부 출반되면서 역사학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돼 있는데 김 군의 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격려했다.

김 군은 "평소 관심 있던 역사와 문화유적을 직접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둔 일기같은 책"이라며 "중학교에 진학하면 이번에 담은 백제 문화유산을 포함해 영산강 문화권 전



체에 대한 역사답사기를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은 지난해 한 TV프로그램에 '문화재를 찾아다니는 아이'로 소개됐고, 최근 '문화유산답사기'를 출판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김 군의 '문화유산답사기'는 부소산성, 낙화암, 무령왕릉, 마곡사지 등 백제문화 유적지를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합평=황은화 기자 hwang@

무안소방서, 재난취약 '누워있는 환자 알림판' 설치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재난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원을 대상으로 '와상 환자 재실 알림판'을 설치했다.

무안소방서는 지역 내 요양병원·요양원 관계자들과 알림판 설치를 협의, 현재 15개소에 128개를 설치했다.

'와상환자 재실 알림판'은 화재 등 재난 발생때 스스로 피난할 수 없는 누워있는 환자가 병실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다. 위급상황때 구조대원이 쉽게 발견해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알림판은 연기가 어두운 환경에서도 발견이 쉬우며 원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와상환자가 입실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복도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승마와 함께하며 건강도 챙기세요"

영광군, 체험 프로그램 다채

영광군은 겨울철 영광승마장 환경정비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승마장은 전남 최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으로, 총 부지면적 2만4744㎡에 시설면적 4524㎡의 규모다. 관리사·사위실·마방·교육관·마장·방목장 등 시설과 전문마필 교육을 이수한 승마교관 3명의 강습인력을 갖추고 있다.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특수학급 재활승마, 외상 후 스트레스(PTSD) 공무원 대상 힐링승마, 성인 대상 전국민 말사랑 운동, 학생 대상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일반 회원 강습 및 체험 승마 등이다. 또 학생승마체험 연계 사업인 포니투덤



영광군이 운영하는 영광승마장은 다음달부터 다양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광군 제공>

제 시험, 기능능력인증제 시험 등이 있다. 유소년 승마단은 영광승마장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전남 대표로 전국소년체전 선발전 및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광승마장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과 질 높은 승마 강습으로 매년 2000여 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승마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한 관광소득 증대 및 스포츠 복지 향상에도

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단체 연계 무료강습, 승마프로그램 체험관광을 실시하는 등 승마 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저출산 극복...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영광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인구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인구교육을 추진, 총 32회 1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구교육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을 활용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해방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이상 5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주택 주택대출
-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저금리대출 특별 대출 서비스
- 55세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소상공인대출
-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소상공인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